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시대 연다

전주시, 완주·전주 통합 염원 담은 마지막 상생발전 비전 ‘행정·교육·청년’ 분야 발표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을 염원하며 행정·교육·청년 분야에서 두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26일 시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위원장 박진상)에 따르면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한 행정 운영체계 구축 △교육격차 해소 △청년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통합시 운영 방향을 담은 행정·교육·청년 분야의 상생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강준 시 기획조정실장과 이미숙 기획행정 분과 위원, 신운호 교육문화분과 위원장, 김선복 청년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 4개 설치 및 구정 기능 확대 △완주·전주 현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 마련 △교육 지원사업의 완주지역 확대 추진 △청년 정주여건 조성 등 4대 핵심전략으로, 앞서 발표한 행정복합타운 완주군 조성사업과 교통, 농업, 문화·체육·산업, 복지 분야에 이은 마지막 상생발전 비전 발표이다.

먼저 시는 통합시의 광범위한 행정구역(1028㎢)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접근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4개의 행정구 설치를 추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을 염원하며 행정·교육·청년 분야에서 두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진한다. 각 구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인사 형평성 확보를 위해 완주·전주의 현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을 마련하고, 직급·직렬별 균형 있는 인사 배치를 통해 조직 내 상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인재육성재단과 협력해 현재 전주에서 운영 중인 교육지원사업을 완주 지역으로 확대한다.

확대 대상 사업은 △진로직업체험선

터 운영 △맛밭이 가정 대상 '엄마표 온종일 놀봄교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으로, 시는 이러한 교육 정책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교육환경을 상향 표준화하고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청년 분야에서는 전주시의 대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인 '청춘 별채(월 1만 원 임대주택)'를 완주 지역의 대학가 및 산업단지 인근에 우선 도입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기로 했

다.

동시에 전주시 '출향 청년 채용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완주 지역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에서 자립하고 성장해 통합시의 미래를 이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복 전주시민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은 "통합을 통해 마련된 기회의 땅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청년들의 활약을 통해서 통합시가 전북권 광역중추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추도시로서 성장하는 미래가 펼쳐졌으면 한다"면서 "그간 발표해 온 6차례, 28개 상생발전 비전 사업들이 완주·전주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과 청년이 살아 있는 도시가 미래가 있는 도시이며, 이번 발표는 단순한 통합시 행정에 대한 설계가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발표했던 분야별 상생발전 비전이 두 지역의 신뢰와 연대의 시작이면서, 광역도시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다시 펼쳐보는 청춘의 한 장면

‘전주 기록 사진 전시회’ 6월 5~15일 하안양옥집서 개최

오래된 졸업앨범 속에 고이 간직된 전주 청춘들의 한 장면을 책장을 넘기듯이 펼쳐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15일까지 하안양옥집(완산구 경기전길 67)에서 오래된 졸업앨범 속에 담긴 전주의 옛 모습과 학창 시절의 추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는 ‘전주 기록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다시 펼쳐보는 청춘의 한 장면’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시민 기록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교 관련 자료를 활용해 앨범이나 책자로만 간직해 온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사진전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체육대회 가장행렬과 교련대회, 체력강, 요리 실습, 백일장, 동아리 활동, 신체검사 등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사진을 비롯해 전주교와 덕진공원, 풍남문, 종합경기장, 학교, 전통성당 등 전주의 주요 문화 유적지를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 8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주요 전시 사진은 △1946년 전주 초등학교 재학생 기념사진 △1947년 전주성심학교 호남탁구대회 개인전 우승 기념사진 △1948년 교향사절단 성심학교 방문기념사진 △1954년 풍남국민학교 입학식 기념사진 △1957년 다간산에서 내려다본 전주시가지 △1974년 전주서중학교 단오기념행사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멀게는 1980년대에서 가까이는 1980년대까



지 졸업앨범 속에 담긴 학교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교의 활동사진으로 △1937년 전주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1940년 한벽투와 한벽굴 △1946년 인봉리 방죽 △1965년 이목대 △1974년 미원담을 지나는 밴드부 거리 행진 등 전주를 상징하는 주요 장소들을 만날 수 있는 사진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 개관 이래 8000여 점의 민간기록물을 수집한 시민기록관은 시민의 삶을 기억하고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달려두고 열어보지 않으면 박제된 기억이 되지만 이렇게 사진전을 열어 더 많은 분들과 전주만의 고유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기증해주신 소중한 자료가 기록자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초포가든’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주민센터(동장 정문구)는 지난 26일,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한 초포가든(대표 양대운)을 방문해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캠페인으로, 초포가든 가입으로 호성동 내 착한가게 50호점이 탄생하게 되었다.

양대운 초포가든 대표는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가게를 운영해 온 만큼 그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나누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성능 고도화

노후 멀티비전 시스템 전면 교체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노후 멀티비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도시 안전 관제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국비 2억4000여만 원을 투입해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멀티비전을 전면 교체했다고 26일 밝혔다.

멀티비전은 관제센터의 핵심 장비로, 전주시 전역에 설치된 4800여 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고화질 대형 디스플레이로 표출해 보다 정밀한 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장비다.

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더 빠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멀티비전 교체를 통해 영상전환 속도와 화면 직관성을 높였다.

또한 새로 설치된 멀티비전은 기존



에 운영하던 AI기반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시스템과 연동해 이상 징후 발생시 실시간 모니터링 효율을 대폭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스템 교체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였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전역에

걸쳐 보다 정밀한 안전 사회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800여 대의 CCTV를 실시간 관제하는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월까지 CCTV 관제를 통한 범죄예방 106건, 사건·사고시 738건의 CCTV 영상을 각각 제공하는 등 시민 안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평화2동, 행복동네 만들기 밀키트 지원

전주시 평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석진)와 평화2동주민센터(동장 이은혜)는 2025년 행복동네 만들기 ‘평이세프가 간다!’ 밀키트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4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4. 5, 9,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진행 예정인 이번 사업은 관내 한부모 등 결식 우려 취약계층 아동 15가구를 선정하여, 밀키트(반조리) 식품을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및 주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한 복지 안전망 구축강화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은혜 평화2동장은 “평화2동 주민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에 앞장서는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세대의 환경 개선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동네만들기 공모사업비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직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